

[사회]

■광주시교육감 이런 사람 뽑자

비전·추진력 갖춘 '교육 수장'을

'광주시교육감 선거인단 3천420명의 손에 광주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

23일 치러지는 민선 4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고, 그 교육을 앞으로 4년 동안 이끌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타가 인정하던 '실력광주'라는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역민들은 광주의 교육이 다시 살아가기를 예타가 원하고있다. 고질적인 교육계 부정부리도 반드시 척결 되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교육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물이 교육감으로 당선돼 새로운 비약을 해주시기를 학습고대하고 있다.

광주교육은 1천3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YMCA 청소년위원장은 "상당수 학교운영위원이 후보자의 성향·능력·자질·공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미 서있는 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질 지 우려되고 있다"

이제야(49)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은(49)은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을 통해 광주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이 내년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본예산 9천400억원의 0.2%인 20억원 정도. 전체의 74%는 교원 인건비고, 학교 기본운영비·학교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쓸 돈이 없다.

물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은 자신이 구상한 시책을 2008년도부터 교육사업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연간 15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감像

- ① 학생중심 교육행정
② 교육재정 확충 능력
③ 미래 청사진 제시
④ 투명·공정한 리더십

광주교육 혁신 바람 불어넣을 인물 기대

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학자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인적 자산과 능력,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교육감이 여는 때보다 절실하다.

광주교육은 특정 인맥에 의해 최근 10년 동안 좌지우지됐다. 그 결과 공정성이 사라지고 줄서기가 난무했다.

지역민들은 광주교육이 특정 인맥에 의해 서있는 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질 지 우려되고 있다"

이제야(49)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은(49)은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을 통해 광주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이 내년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본예산 9천400억원의 0.2%인 20억원 정도. 전체의 74%는 교원 인건비고, 학교 기본운영비·학교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쓸 돈이 없다.

물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은 자신이 구상한 시책을 2008년도부터 교육사업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연간 15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교육감은 어떤 자리

교육감은 교육장 등 교육전문직과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와 조직개편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교육감의 인사권한은 말 그대로 엄청나다. 우선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200여 학교장 인사·정책 결정 등 교육미래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

기존의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을 통해 광주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이 내년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본예산 9천400억원의 0.2%인 20억원 정도.

물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은 자신이 구상한 시책을 2008년도부터 교육사업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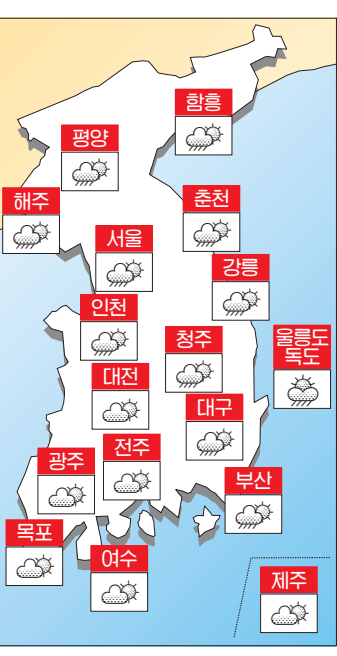
잠잘 땀 이불 '꼭'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뒤 오전에 개겠다.

10월 23일

(음 9월 2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3.0m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24th, 25th, 26th, 27th, 28th, and 29th.

광주·전남 전기 안전 취약 설비 부적합률 '전국 최고'

광주·전남지역의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 전기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이 22일 배포한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용 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전기 점검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부적합률은 2003년 1.4%, 2004년 2.3%, 2005년 1.9%, 을 8월 말 현재 1.8%로 전국 평균(2003년 0.8%, 2004년 1.1%, 2005년 0.9%, 2006년 8월 현재 1.0%)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0.93%, 전남 1.74%로 전국 평균치 0.69%를 훨씬 웃돌았으며 전남은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전국 대비 전남의 전기 화재사고 비율은 4.1%로 인구 비율 3.8%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감전사고 비율은 7.8%로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권총강도 용의자 검거

서울 강남경찰은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은행 강남 PB(프라이빗 뱅킹)센터 권총강도 사건 용의자 정모(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실내 사격연습장에서 훔친 45구경 권총으로 20일 국민은행 강남 PB센터에 들어가 재산관리 상담을 하는 척하다 강도로 돌변,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많다

사망 초래 등 2005년 한해 302건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열린 리딩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를 앓던 김모(59)씨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허겁지겁 무한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하루 10알 이상 먹기 시작하며 갑자기 황달·간독 증세로 지난해 사망했다.

Table showing health supplement side effects by product type: 77(25.5%) for nutrient supplements, 29(9.6%) for chitosan, 27(8.9%) for glucomannan, 23(7.6%) for ginseng, 20(6.6%) for chitosan, 11(3.6%) for spirulina, 10(3.3%) for chlorophyll, 9(3.0%) for alginate, 5(1.7%) for berberine, 4(1.3%) for food supplement, 3(1.0%) for natural health products.

이상 59건 (19.5%) ▲중추 및 말초신경계 14건 (4.6%) ▲생식기능(여성) 8건 (2.6%)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김씨와 같은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302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을 섭취하다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77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키토산 29건(9.6%) ▲글루코만난 27건(8.9%) ▲홍삼 23건(7.6%) ▲녹차 추출제품 20건(6.6%) 등 순이었다.

"부작용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생각해 과다섭취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며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질병 치료'가 된다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복용을 소홀히 하면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친 마음 안아 드립니다" 'Free Hugs 운동' 광주 상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안아드려요'(Free Hugs) 운동이 광주에도 상륙했다. '충장로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나성미(17·고 2)양 등 광주지역 회원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아드려요'란 피켓을 들고 행진 안아주기에 나섰다.

년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작된 '안아드려요' 운동은 나이·직업·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포옹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 '사랑 실천 운동'. 한국에서는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Free hugs'란 이름의 카페가 생기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년 반 전, 호주 시드니에서 후안 만 이란 이름의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작된 '안아드려요' 운동은 나이·직업·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포옹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 '사랑 실천 운동'.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입대사업자 & 직원 모집' (Recruitment for tenants and employe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이용기능장 1호' (1st Utility Engineer) with photos of candidates and contact information.